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목 차

■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국내 스타트업 현황	3
3.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의 5가지 트렌드	7
4. 시사점	12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개 요

스타트업(Startup)이란 일반적으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한다.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혁신주도형 경제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제는 IT대표기업으로 자리잡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NHN)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대표적인 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스타트업 활동을 나타내는 카우프만 스타트업 활동지수(Kauffman Startup Activity Index)가 반등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가 '11년 874억 달러에서 '15년 2,438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스타트업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국내 스타트업 현황

(외형 성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성 및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 수는 '00년 8,798개에서 '15년 31,260개로 증가했으나 '10년 이후 증가세가 10%대 이하로 둔화되었다.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0년 72.2억원에서 '14년 71.9억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평균 근로자는 동기간 27.3명에서 24.0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별) ICT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부문의 벤처기업 비중이 '10년 2.1%에서 '14년 6.3%로 4.2%p 증가하며 ICT서비스 부문의 벤처기업 비중이 '10년 13.5%에서 '14년 17.3%로 확대되었다. 전체 벤처투자 중에서 ICT서비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중도 '10년 7.4%에서 '15년 19.3%로 11.9%p 증가했다.

(자금조달) 정부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다.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중 정부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기준 46.1%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벤처캐피털의 신규 투자 규모는 '10년 1조 910억원에서 '15년 2조 8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수혜 벤처기업 수는 전체 벤처기업 수 대비 3.3%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경쟁력) 지적재산권 보유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기술 수준은 하향세를 보인다.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10년 6.7개에서 '14년 7.4개로 증가했다. 반면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비교해 자사 주력 제품(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이 '미흡' 또는 '열세'라고 응답한 벤처기업 비중은 '10년 19.7%에서 '14년 30.1%로 증가해 벤처기업의 체감 기술력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의 5가지 트렌드

(지역별) 북미지역이 스타트업 투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다. '15년 기준 북미지역의 스타트업 투자는 1,427.6억달러로 세계 스타트업 투자의 58.5%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1년 7.9%에서 '15년 21.6%로 확대되었다.

(산업별)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헬스, HR(Human Resources)테크 등 부문의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하다. '15년 기준 인터넷 부문 스타트업 투자는 전체 스타트업 투자의 33.8%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실시간, 온-오프라인 서비스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모바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11년 10.0%에서 '15년 15.5%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투자주체별)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내 CVC의 투자 규모가 '11년 27.7억 달러에서 '15년 224.6억 달러로 급등한 가운데,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CVC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경험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투자 기업에 대한 특허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7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9%가 이러한 경향은 과거 5년간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특허권 분쟁은 해당 기업 및 투자자에게 경영상 어려움, 소송 비용 지출 등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it Market) M&A 및 IPO가 활성화되고 있다. 스타트업 M&A는 '11년 4,235건에서 '15년 9,365건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글로벌 M&A 대비 비중도 10.1%에서 22.1%로 확대되었다. 동기간 스타트업 IPO도 110건에서 404건으로 연평균 38.4% 증가했다.

■ 시사점

신성장 동력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확충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셋다운제, 위치정보보호법 등 규제의 보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 생태계 내 아이디어 소통을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신사업 기회가 풍부한 중국 등 신흥국 및 일부 선진지역에서 스타트업 및 일반 기업의 해외 스타트업 투자 추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기업들의 진출 희망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합진출지원센터 구축, 국내 기업간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미래 선도 산업인 모바일 및 의료·헬스 부문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이들 부문을 집중 지원 산업으로 선정해 창업자금 지원 확대, 기타 재무·법률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특허 사용권 확보, 법률 자문 제공 체제 마련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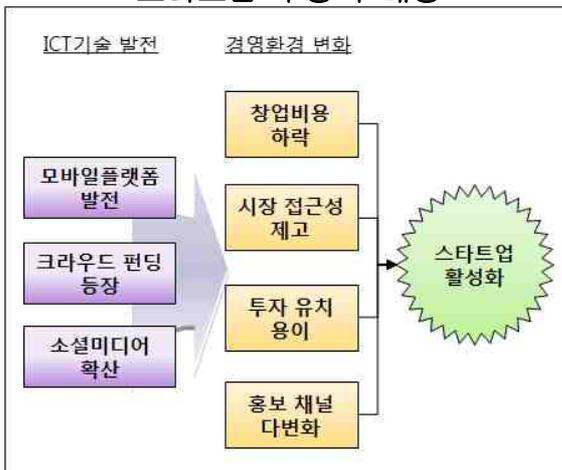
다섯째, 스타트업 M&A, IPO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추진해야 한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술 이해력을 갖춘 금융인력 양성,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개요

○ 스타트업의 개념 및 중요성

- 스타트업(Startup)이란 일반적으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
 - ‘외부자본(벤처캐피탈이나 엔젤)의 투자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의 고위험·고수익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형태’가 일반적
 - 국내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¹⁾을 의미
 - ICT의 발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확산 등으로 창업 장벽이 낮아지면서 스타트업의 기반이 마련
-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끄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음
 - 스타트업은 특히 신산업 형성 초기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일례로 가트너는 2017년까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솔루션의 50%가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부터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
 -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NHN)도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으나 비교적 단기 간내 IT대표기업으로 자리잡음

< 스타트업 부상의 배경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기업 가치 10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

기업명	내용		
	기업가치 (억달러)	설립연도	국가
샤오미	480	2010	중국
우버	412	2009	미국
팔란티르	150	2004	미국
스냅챗	150	2012	미국
스페이스X	120	2002	미국
핀터레스트	110	2008	미국
플립카트	110	2007	인도
에어비앤비	100	2008	미국

자료 : The Wall Street Journal(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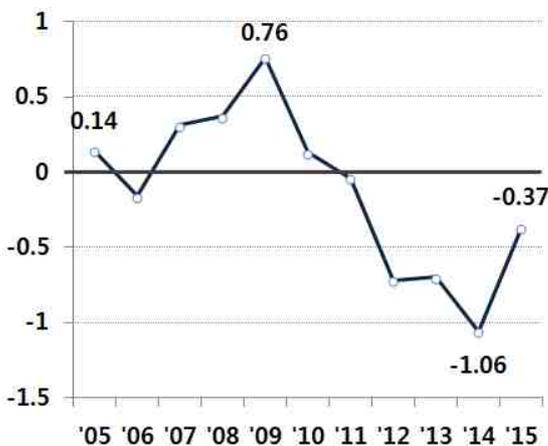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 연구 필요성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국내의 스타트업 활동은 최근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
 - 일반적으로 경기 반등 전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스타트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 및 신성장 동력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음
 - 미국의 스타트업 활동을 나타내는 카우프만 스타트업 활동지수(Kauffman Startup Activity Index)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스타트업 활동이 '15년 들어 반등
 -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는 '11년 874억 달러에서 '15년 2,438억 달러 규모로 3배 가까이 확대됐으며, 투자 건수도 10,347건에서 19,570건으로 증가
 -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굿닥(헬스IT), 쏘카(카셰어링), 배달의민족(모바일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스타트업이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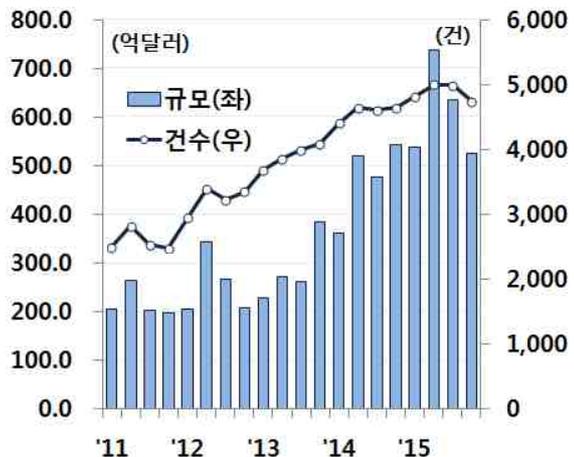
-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신시장 창출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의 지역별, 산업별 등 트렌드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고자 함

< 카우프만 스타트업 활동지수 >



자료 : Kauffman Foundation.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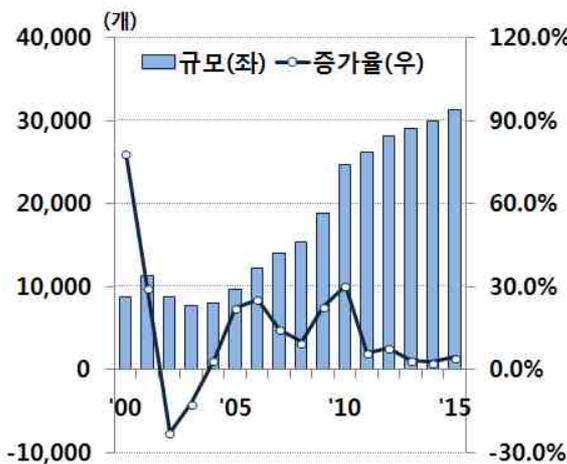
자료 : CB Insights.

2. 국내 스타트업 현황

① (외형 성장) 벤처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창업, 성장성 및 고용창출력이 둔화

- 벤처기업의 수 및 전체 매출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벤처 창업이 둔화되고 매출액 증가율도 하락세
 - 국내 벤처기업 수는 '00년 8,798개에서 '15년 31,260개로 증가했으나 '10년 이후 증가세가 10%대 이하로 둔화
 - 벤처기업 전체 총 매출액도 '10년에서 177조원에서 '14년 21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동기간 18.9%에서 11.2%로 하락
- 벤처기업의 성장성 및 고용 창출 능력도 둔화
 -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0년 72.2억원에서 '14년 71.9억원으로 소폭 하락
 - 동기간 평균 영업이익은 4.2억원에서 4.2억원, 평균 영업이익률은 5.9%에서 5.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벤처기업 당 평균 근로자는 '10년 27.3명에서 '14년 24.0명으로 감소

< 벤처기업 수 및 증가율 추이 >



자료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

< 벤처기업 경영성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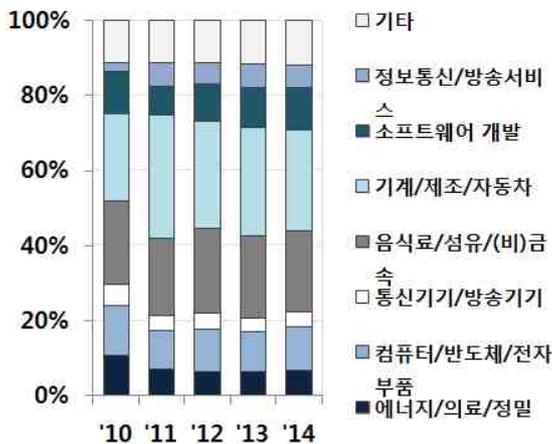


자료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② (산업별) ICT서비스가 부상하는 반면, ICT제조 비중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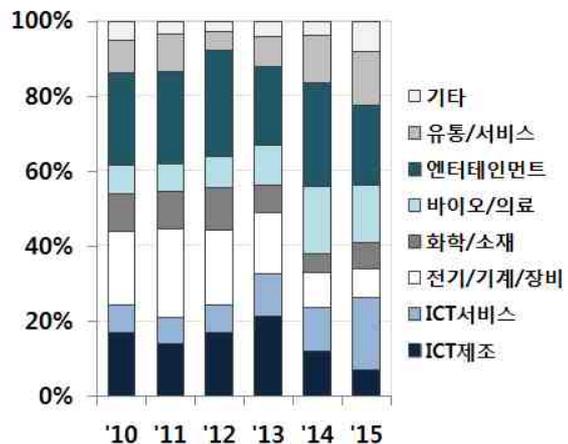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부문의 벤처기업이 증가하면서 ICT서비스 부문의 벤처기업 비중이 '10년 13.5%에서 '14년 17.3%로 확대
 - ICT서비스는 크게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로 분류
 - 전체 벤처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의 벤처기업 비중은 '10년 11.4%에서 '14년 1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같은 기간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부문의 벤처기업 비중은 2.1%에서 6.3%로 4.2%p 증가
 - 반면 에너지/의료/정밀('10년 10.6%→'14년 7.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10년 13.4%→'14년 11.7%) 등은 그 비중이 축소
- ICT서비스에의 벤처투자도 '10년 7.4%에서 '15년 19.3%로 확대
 - 전체 벤처투자 중에서 ICT서비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10년 7.4%에서 '15년 19.3%로 11.9%p 증가
 - 동기간 바이오/의료 부문에의 벤처투자도 9.8%에서 15.2%로 확대
 - 반면 ICT제조('10년 17.0%→'15년 7.0%), 전기/기계/장비('10년 19.6%→'15년 7.7%) 등은 그 비중이 축소됨

< 업종별 벤처기업 비중 >



자료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 업종별 벤처투자 비중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③ (자금조달) 벤처기업은 신규자금의 상당부분을 정부정책자금으로부터 조달하며, 벤처캐피털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미미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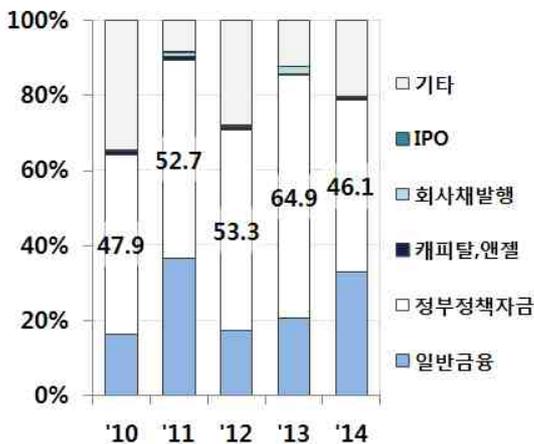
- 벤처기업이 조달하는 신규자금 중 정부정책 자금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 금융, 벤처캐피털 등

-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중 정부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기준 46.1%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 조달한 신규자금의 비중은 '10년 36.6%에서 '14년 32.9%로 감소하긴 했으나 주요 자금조달방안 중 하나
- 한편 '14년 기준 벤처캐피털(엔젤투자 포함), 회사채발행, IPO 등으로 조달한 신규자금의 비중은 각각 0.4%, 0.6%, 0.0%를 기록

- 벤처캐피털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혜 벤처기업은 3.3% 수준

- 국내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10년 1조 910억원에서 '15년 2조 858억원으로 증가
- 같은 기간 투자업체 수도 560개에서 1,045개로 증가했으며 '15년 기준 전체 벤처기업 대비 3.3% 수준
- 한편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투자를 이미 받았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응답한 벤처기업의 비중은 '10년 10.5%에서 '14년 2.3%로 감소

< 신규자금 조달방법 추이 >



자료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 벤처캐피털 투자 추이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인.

주 : 업체 비중은 전체 벤처기업 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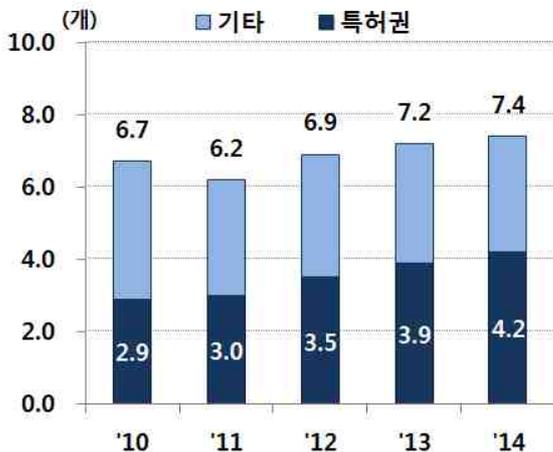
④ (기업경쟁력) 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기술수준은 하향세

-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10년 6.7개에서 '14년 7.4개로 증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해외산업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은 신기술·신산업 기반 벤처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
 - 한편 벤처기업이 보유하는 특허권은 '10년 평균 2.9개에서 '14년 4.2개로 증가하면서 지적재산권 증가를 견인
 - 다만 실용신안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은 '10년 3.8개에서 '14년 3.2개로 감소했으며, 출원진행중인 지적재산권도 동기간 2.2개에서 1.4개로 감소

- 한편 벤처기업의 체감 기술력 수준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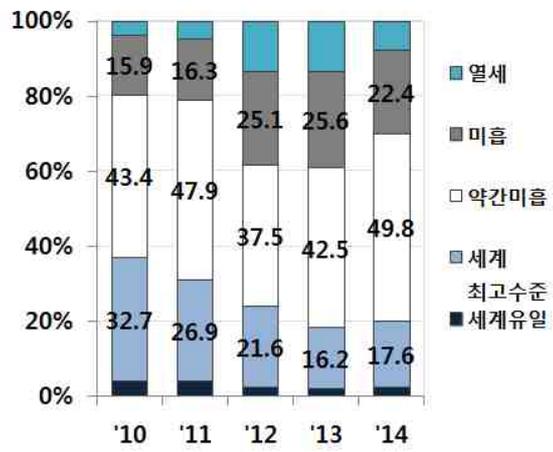
- 조사에 따르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비교하여 자사의 주력 제품(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이 '세계 유일'의 기술 수준이라고 응답한 벤처기업의 비중은 '10년 4.2%에서 '14년 2.5%로 하락
-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같은 기간 32.7%에서 17.6%로 대폭 하락
- 반면 '미흡' 또는 '열세'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9.7%에서 30.1%로 증가해 국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

< 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추이 >



자료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 평가 >



자료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3.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의 5가지 트렌드

① (지역별) 북미 지역에서의 스타트업 투자가 가장 활발한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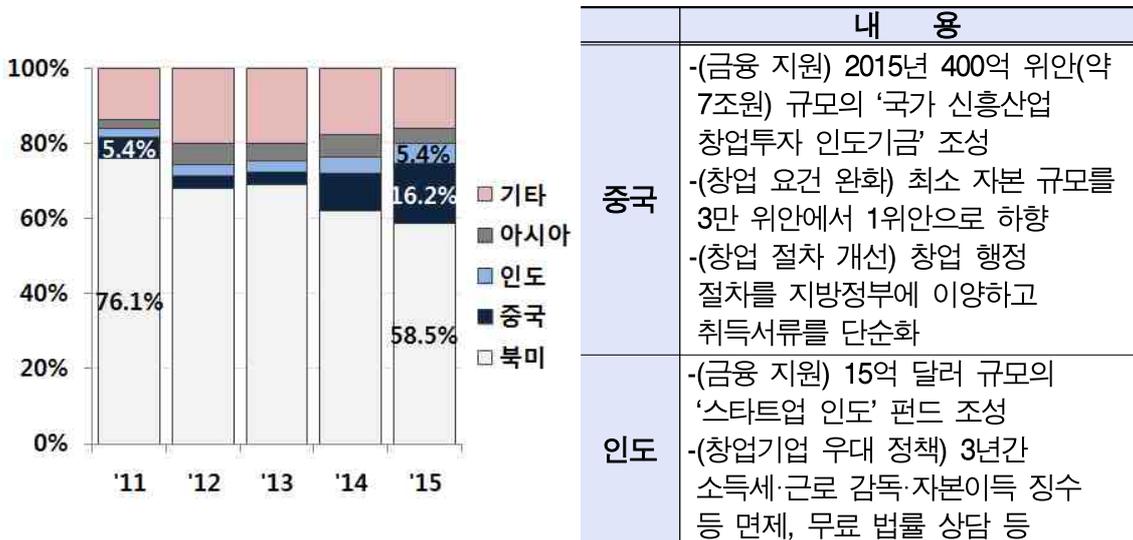
- 북미지역이 세계 스타트업 투자를 선도

- '15년 기준 북미지역은 총 1,427.6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세계 스타트업 투자의 58.5%를 차지

- 한편 중국과 인도에서의 스타트업 투자가 빠르게 확대

- 전세계 스타트업 투자 중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1년 5.4%에서 '15년 16.2%,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5%에서 5.4%로 확대
 - * 스타트업 투자 규모: 중국('11년 46.9억달러→'15년 394.8억 달러), 인도('11년 22.1억달러→'15년 131.8억 달러)
- 중국 리커창 총리는 '15년 3월 양회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革新)”을 천명하고 각종 행정규제의 축소/철폐 및 자금 지원을 선언
- 인도 모디 총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법인소득세·근로감독·자본이득에 대한 관리감독 면제(3년), 무료 법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Startup India' Initiative를 추진

< 세계 스타트업 투자의 지역별 분포 > < 중국·인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



자료 : CB Insights.

② (산업별) 인터넷 부문 스타트업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모바일, 디지털헬스, HR(Human resources)테크 등 부문의 투자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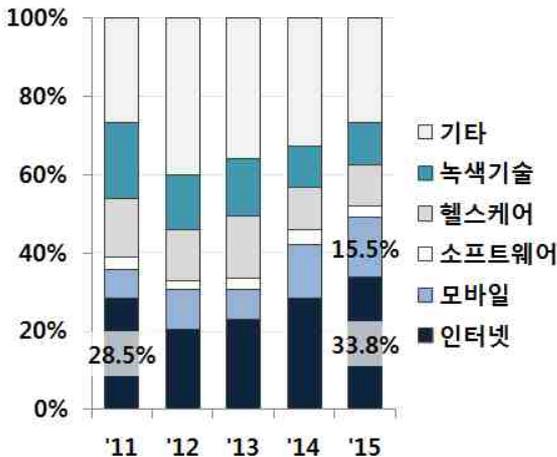
- 인터넷 부문 스타트업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순

- 전체 스타트업 투자 중 인터넷 부문의 스타트업 투자 비중은 '11년 28.5%에서 '15년 33.8%로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그 다음으로 모바일('15년 기준 15.5%), 에너지(10.9%), 헬스케어(10.7%) 순

- 모바일 부문 스타트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헬스케어 및 사업서비스 스타트업 투자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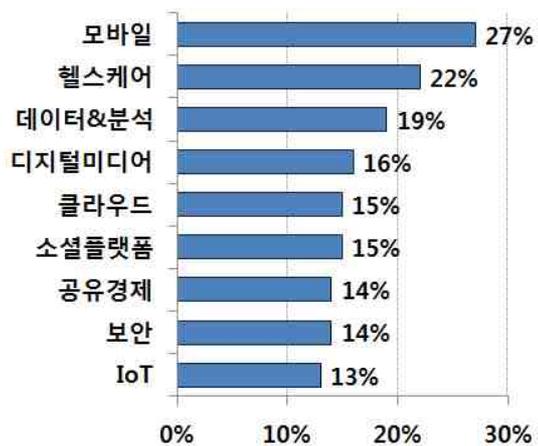
- 한편 온디맨드(On-Demand)²⁾, O2O³⁾ 서비스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모바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11년 10.0%에서 15.5%로 확대
- 전반적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디지털헬스 부문의 스타트업 투자는 '10년 9.5억 달러에서 '15년 57.4억달러로 6배 가량 증가
- 사업서비스 중 HR테크 투자도 '12년 3.6억 달러에서 '15년 24.6억달러로 급증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의 산업별 분포 >



자료 : CB Insights.

< 향후 IT산업을 이끌 성장동력 >



자료 : KPMG(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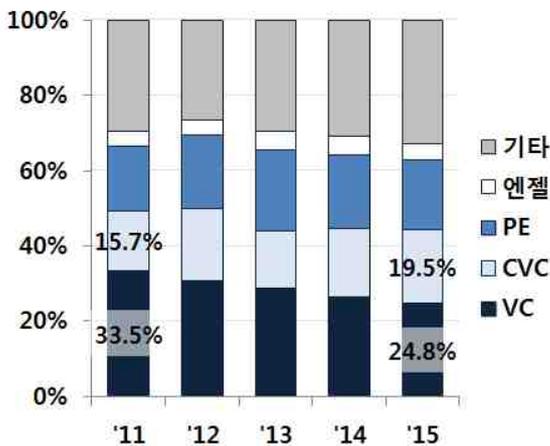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버(미국), 카카오택시(한국) 등이 대표적. 온디맨드 모바일 스타트업 투자는 2010년 570만 달러에서 2014년 4억 1,240억 달러로 급증.

3) 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 초기에는 온라인을 이용해 고객이 특정 지역에 들어 서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쿠폰을 보내주는 등의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확인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결제를 도와주는 오프라인-온라인 서비스 등 양방향 서비스를 총칭.

③ (투자주체별)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 벤처캐피털)를 포함한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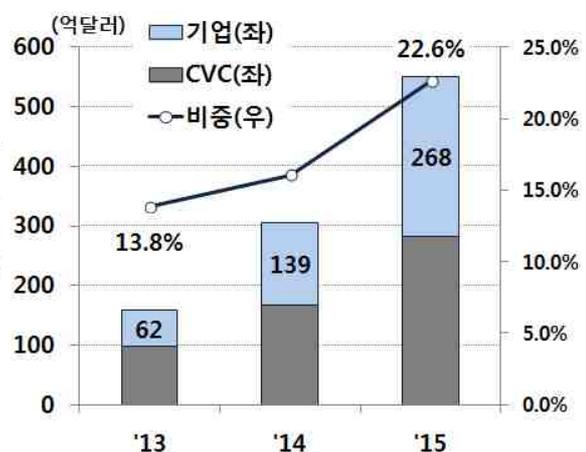
- 전통적으로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자는 VC(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털)
 -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주체로는 VC(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 벤처캐피털), PE(Private Equity, 사모펀드), Angel(엔젤) 등
 - 일반적으로 선진국 스타트업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VC로부터 자본금 유치를 선호하며, '15년 기준 VC의 스타트업 투자규모는 전체 스타트업 투자의 25.9%인 772.0억 달러를 기록
- 한편 최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CVC의 비중이 확대세
 - 중국 내 CVC의 투자 규모는 '11년 27.7억 달러에서 '15년 224.6억 달러로 급등
 - 북미('11년 136.9억달러→'15년 341.0억 달러), 유럽('11년 14.5억달러→'15년 73.4억 달러) 등 주요 지역에서도 CVC투자가 확대
- 기업의 자체적인 스타트업 투자까지 포함하면 기업이 관여하는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15년 현재 전체 스타트업 투자의 23%로 확대
 - CVC 외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는 '13년 62억 달러에서 '15년 268억 달러로 증가
 - 이에 CVC 포함 기업이 관여하는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159억 달러에서 55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체 스타트업 투자의 22.6%를 차지

< 스타트업 투자의 투자자별 비중 >



자료 : CB Insights.

< CVC 및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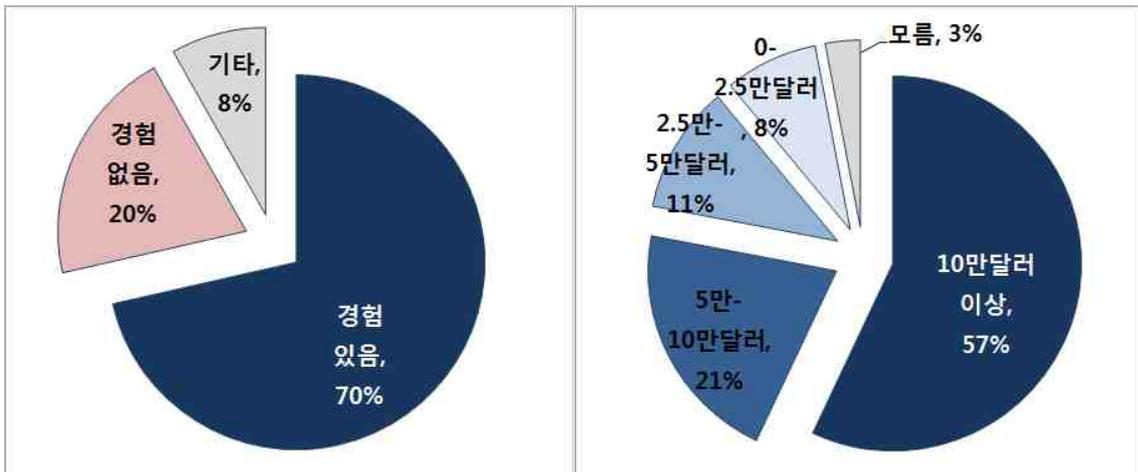
자료 : CB Insights.

주 : 비중은 전체 스타트업 투자 대비 CVC 및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비중.

④ (기업경쟁력)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경험하는 스타트업이 증가세

- 스타트업이 체감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주로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특허권·지적재산권 관련 분쟁⁴⁾에 취약한 측면이 존재
 - 한편 벤처투자가(벤처캐피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 기업에 대한 특허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70%로 나타났으며,
 - 응답자의 79%가 이러한 경향은 과거 5년간 증가했다고 답변
- 특허권 분쟁은 해당 기업 및 투자자에게 경영상 어려움, 소송 비용 지출 등 사업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권 분쟁으로 매우 심각하거나 상당히 심각한 기업의 경영위기(기업 전략 수정, 자원 재배치 등)를 경험한 비율이 58%를 차지
 - 또한 응답 기관의 50% 이상이 특허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응답

< 특허 소유권 분쟁 경험 여부 > < 특허권 분쟁에 대한 기업 비용 지출 >



자료 : Feldman, 'Patent Demands & Startup Compnies: The View from the Venture Capital Community'.

자료 : Feldman, 'Patent Demands & Startup Compnies: The View from the Venture Capital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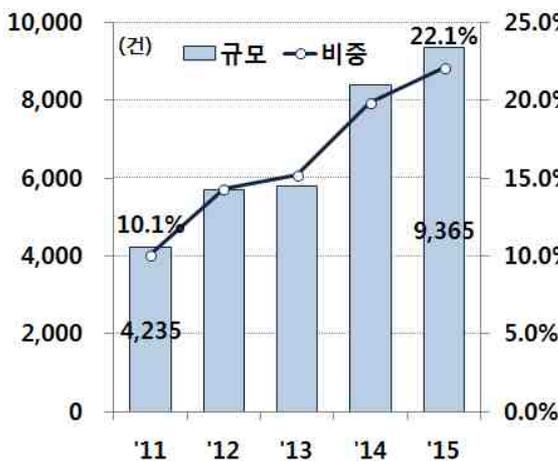
4) 기업의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에 차용된 기술에 대해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송 위협 등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

⑤ (Exit Market)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의 M&A 및 IPO가 활성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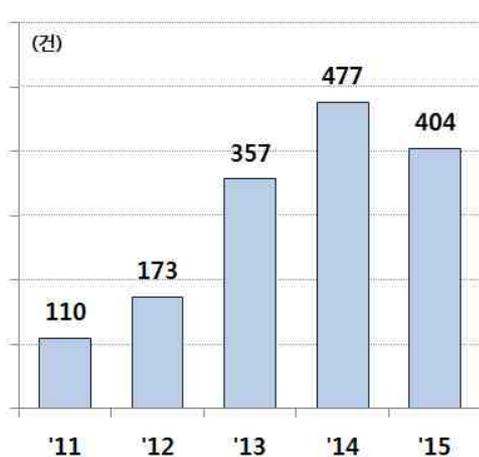
- 북미 및 유럽 등 선진국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M&A가 빠르게 증가
 - 스타트업의 M&A 및 IPO 가능성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직결되며, 특히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
 - 스타트업 M&A는 '11년 4,235건에서 '15년 9,3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글로벌 전체 M&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22.1%로 확대
 - 스타트업 M&A가 가장 활발한 곳은 북미지역으로 '15년 기준 세계 전체 M&A의 14.4%에 해당하는 6,098건의 M&A가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5.1%), 중국 및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1.8%) 등

- 스타트업 IPO도 '11년 110건에서 '15년 404건으로 연평균 38.4% 증가
 - 스타트업 IPO는 '11년 110건에서 '14년 477건까지 증가했다가 '15년 들어 404건으로 소폭 하락
 - 지역별로 '15년 기준 북미지역에서의 스타트업 IPO는 글로벌 스타트업 IPO의 53%에 해당하는 215건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22.1%), 유럽(20.5%) 순

< 글로벌 스타트업 M&A 추이 >



< 글로벌 스타트업 IPO 추이 >



자료 : CB Insights, Thomson Reuter.
 주 : 비중은 글로벌 M&A 건수 대비 비중.

자료 : CB Insights.

4. 시사점

- 신성장 동력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확충 및 투자 확대가 필요
 - 첫째,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지원 제도 강화
 - 혁신성과 민첩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스타트업의 발전 방향과 지원 대책 논의를 주도
 -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서비스 개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셋다운제, 위치정보보호법 등 규제의 보완, 개선이 필요
 - VC, 엔젤투자자 등 민간의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매칭투자펀드 활성화 등을 추진
 - 둘째, 스타트업 및 일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
 -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비중이 높으며, 성장 기회가 풍부한 중국 등 신흥국 및 일부 선진지역 진출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함
 - *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창업자의 45%가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고 응답
 - 또한 기존 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일반 기업은 신사업 발굴 및 기술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주목할 만함
 - 스타트업 및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진출 기회 정보 제공 및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
 -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기 진출 기업 경영진 초청 세미나 개최 등으로 해외 진출 노하우 공유 및 해외 진출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
 - 셋째, 미래 선도 산업인 모바일 및 의료·헬스 부문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 확대 시급
 - 모바일 및 의료·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
 - 해당 부문을 집중 지원 산업으로 선정해 창업자금 지원 확대, 창업에 필요한 재무·법률 컨설팅 제공 등 지원 체계를 강화
 - 넷째, 지적재산권 분쟁을 대비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바람직
 -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

- 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동 특허 사용권 확보, 법률 자문 제공 등이 필요
- 추가적으로 ICT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 및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됨을 감안해 국내외 인증 획득 관련 정보 및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특화 지원 체계를 구축
- 다섯째, 스타트업 M&A, IPO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추진
 - 스타트업 M&A 및 IPO 활성화는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술 이해력을 갖춘 금융인력 양성,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전해영 선임연구원 (2072-6241, hjeon@hri.co.kr)